

일본 ODA와 종합상사의 역할*

한기조**
hkijo@deu.ac.kr

<目次>

- | | |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산업통상의 변천과 ODA 및 종합상사의 역할 |
| 2. 산업통상환경의 변화와 ODA의 특징 | 4. 결론과 시사점 |

主題語: 일본(Japan), 공적개발원조(ODA),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종합상사(General Trading Company; Sogo Shosha),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적 목적성이다. 이러한 특징은 전후 배상으로 시작한 일본의 ODA 초기부터 자국의 경제성장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경제 실익형 ODA를 추구하는 대표국가로 알려져 있다.

일본정부는 경제 성장전략으로서 ODA와 결부시켜 기업의 인프라 산업의 해외진출을 추진해왔다. 주로 ①원자력산업(발전)을 인도, 베트남 등 국가로부터 수주, ②상하수도 등의 물(水) 관련 기술을 아시아 등으로부터 수주하고, ③고속도로, 고속철도, ④통신, ⑤환경기술 등의 인프라 산업의 해외진출을 추진해왔다.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일본경제는 장기간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으며,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왔다. 최근에는 ‘경제재정의 중기방침과 10년 전망’(2009년), ‘신성장전략’(2010년), ‘일본재생 전략’(2012년), 그리고 2013년 6월 14일에 ‘일본재흥전략’이라고 이름 붙여진 성장전략이 각의 결정되었다(외무성, 2013).

이처럼 일본 ODA는 일본의 산업 및 통상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되어

* 이 논문은 2015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과제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2015AA131).

** 동의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왔으며, 최근의 ‘성장전략’에서도 ODA는 성장전략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도 확대되는 국제시장 획득을 통해 침체에 빠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략적인 통상관계의 구축과 경제연계의 추진’, ‘패키지형 인프라의 해외전개’, ‘인프라 수출촉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이 ODA와 연계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ODA 주관자로서 1부12성청이 ODA에 관여하고 있으며, 외무성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원조정책을 기획·입안하고 정책을 조정하며, 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가 실제로 기술협력, 유상자금협력, 무상자금협력 등 종합적인 원조 실시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ODA 역사에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종합상사가 ODA안건을 조사발굴하고 제안하고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즉, 종합상사는 일본기업 중에서 개도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 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각 관계자 간의 코디네이터 역할자로서 ODA안건을 추진하는 기능을 담당해왔다. 종합상사는 개도국정부의 수요(need)를 파악하고, 일본정부의 원조방침과 일본의 기술적우위성을 파악하여, 일본이 시행하는 원조로서 유익하고 효과적인 안건을 제안함으로써 실제 프로젝트에서 건설업체나 제조업체를 관리하고 물류기능을 제공하는 등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일본 ODA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본 ODA의 정책적인 변화나 외교정책적인 측면,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전황수(1995), 김성태(2007), 강철구·홍진이(2009), 박홍영(2001, 2002, 2010), 賠償問題研究會編(1959, 1963), 通商産業省(1960, 1970, 1975), 稲田(1987, 1996, 1997, 2003), 鷺見(1997), 山下(2003), 五百旗頭(2003), 渡辺·三浦(2003), 那須(2006), Arese(1994), Sunaga(2004), Yanagihara & Emig(1991) 등이 있으며, 한국의 연구는 주로 일본 ODA의 실시체계 및 정책변화, 성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 ODA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 및 해외의 연구는 일본 ODA의 정책변화 및 성과에 대한 연구에 더하여 인도적 차원보다는 실리위주로 실시되는 일본 ODA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 혹은 배분정책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ODA 실시에서 일본종합상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일본 ODA에서 종합상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ODA의 특징 및 전략을 일본의 산업 및 통상 정책과 연계하여 고찰하고, ODA의 실제적인 실시 주체로서의 일본종합상사의 역할과 그 변화 등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ODA정책 및 통상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산업통상환경의 변화와 ODA의 특징

2.1 일본 ODA의 변천 및 목적과 실시체제

전후, 일본은 재건과 경제회복을 위해 산업통상전략으로 주로 아시아지역에 대한 ODA 공여와 연계시켜 ‘수출진흥’ 및 ‘개발수입’ 정책을 추진했다(배상문제연구회 1963, p.24; 통산성 1960, p.50; 통산성 1975, p.134; Yanagihara & Emig 1991, pp.38-39; 湯 2011, pp.51-52). 1970년대 및 80년대에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ODA의 양적확대와 인도적 지원 등 원조가 다양화했지만(통산성 1993, p.80), 여전히 수출입과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 등의 동남아시아 진출 등의 경제적 이익추구와 연계되어 아시아지역 특히 동남아시아에 ODA가 집중적으로 제공되었다.

1990년 들어서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ODA의 목표로 민주주의 확산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등이 강조되면서 경제개발이나 빈곤퇴치 등과 같은 원조의 인도주의적 목적이 더욱 강화되었다. 90년대 들어서 ‘ODA 4대 지침’의 발표와 ‘ODA大綱’이 閣議에서 결정되면서, 일본은 ‘인도적 고려, 상호의존관계 인식, 환경보전, 개도국의 자조노력 지원’이라는 원조이념을 근간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공헌에서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ODA를 증대시켜왔다(박홍영 2010, pp.251-254).

그러나 90년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지속적인 국내 경기 침체와 원조피로 현상으로 일본 ODA 예산은 97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국제적으로 개발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일본도 효율적인 ODA의 실시와 국익을 위한 ODA의 전략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ODA를 개혁(2003년 11월 ODA대강 개정)하였다. 또한 아시아 지역(특히 동남아시아)으로의 중점배분, 평화구축의 중시, 인간 안전보장의 중시, 국민참가·얼굴이 보이는 원조를 강조하면서 ODA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왔다(외무성 2002).

2010년 이후 일본은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ODA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제창하면서 일본 경제의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서 ‘인프라 시스템’ 수출,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일본외무성 2013). 2013년 “ODA백서”에서 일본은 ‘ODA를 일본 및 국제사회 전체를 위한 미래에의 투자’로 규정하고 도상국의 인프라 개발 지원에서 ODA와 인프라 수출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피원조국의 경제발전과 일본 자신의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일본경제는 장기간의 침체에 빠져 있으며,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왔다. 최근에는 ‘경제재정의 중기방침과 10년 전망’(2009년), ‘신성장전략(2010년), ‘일본재생전략’(2012년), 그리고 2013년 6월 14일에 ‘일본재흥전략’이라고 이름 붙여진 성장전략이 각의 결정되었다. 또한 최근의 ‘성장전략’에서도 ODA는 성장전략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즉, 이들 전략에서도 확대하는 국제시장을 획득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략적인 통상관계의 구축과 경제연계의 추진’, ‘패키지형 인프라의 해외전개’, ‘인프라 수출촉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이 ODA와 연계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ODA를 활용한 일본기업에 의한 기기의 수출뿐만 아니라 인프라의 설계, 건설, 운영을 포함한 ‘시스템’으로서의 수주나, 사업투자의 확대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인프라 시스템의 수출은 ①수주기업이 직접적인 이익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일본기업의 진출거점의 정비, ②공급망(supply chain)의 강화 등 복합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ODA와 인프라 수출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인프라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하여 ODA를 활용하는 것은 일본 및 피원조국 쌍방에게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일본정부는 2013년 5월 ODA를 포함한 역점사업으로 ‘인프라 시스템 수출전략’을 책정했으며, 인프라 시스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OD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이 시행되고 있다(일본외무성, 2013). 즉, ①일본기술을 더욱 활용하도록 제도개선(STEP 제도개선)¹⁾, ②외화변제형 엔차관의 도입을 비롯한 엔차관의 제도개선, ③JICA해외투용자의 적극적인 활용, ④민간섹터와 연계한 마스터 플랜의 작성, ⑤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업 참가(ODA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개발도상국과의 관계구축을 도모하며, 지방기업의 노하우 활용으로 지방기업의 해외전개를 기반으로 함), ⑥인프라 해외전개를 위한 법제도 등 비즈니스 환경정비, ⑦글로벌 인재 육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ODA 공여는 정치, 외교, 산업통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그 성격이 조금씩 변화되어 왔다. 1990년 버블경제 붕괴 이후 전략적 추진과 함께 9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국제공헌과 국익(정치·외교적 및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안보전략’ 및 ‘일본재흥전략’에서 ODA를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듯이 일본 ODA의 공여목적은 국익(경제적 이익추구)으로 수렴된다.

또한 ODA 주관자로서 1부12성청이 ODA에 관여하고 있으며, JICA는 기술협력, 유상자금협력, 무상자금협력 등 종합적인 원조실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일본 ODA 역사에서 주로 일본 종합상사²⁾가 실질적으로 ODA안건을 조사발굴하고 제안하고 추진하는

1) STEP제도란 일본의 우수한 기술 및 노하우를 개도국으로 이전을 통해 ‘얼굴이 보이는 원조’를 촉진하기 위해 2002년 7월에 도입된 ‘일본 기술 활용조건(Special Terms for Economic Partnership)’을 말함.

2) 일본의 종합상사는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10사 이상인 적도 있으며, 변천을 거듭해 왔다. 1977년 伊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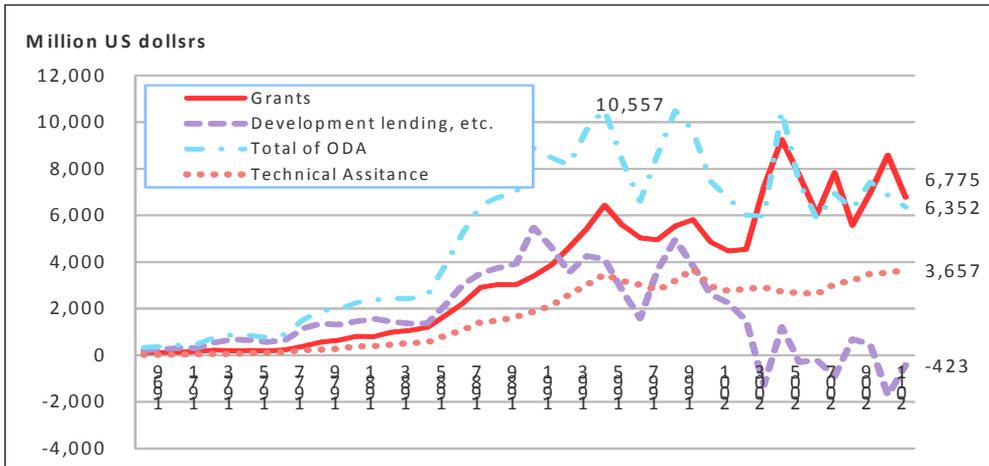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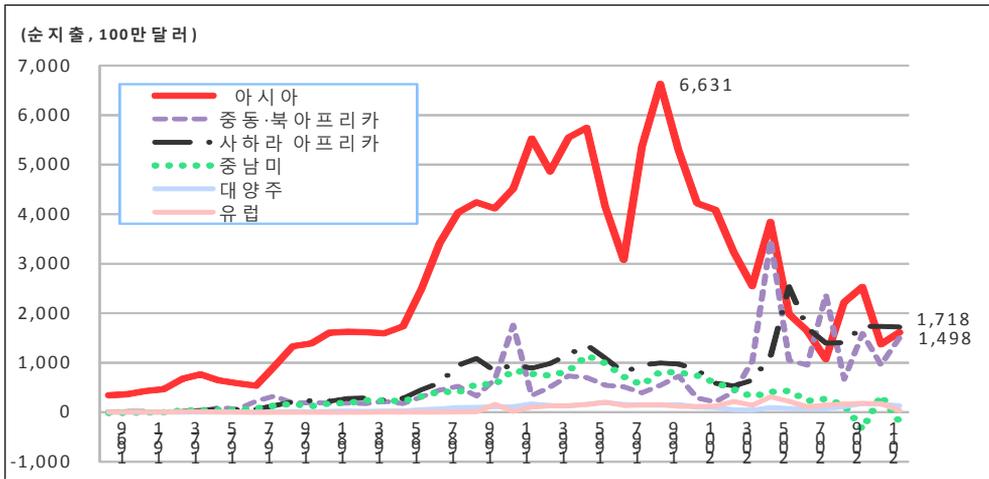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즉, 종합상사는 일본기업 중에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 생산 및 판매 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각 관계자 간의 코디네이터 역할자로서 ODA안건을 추진하는 기능을 담당해왔다. 종합상사는 피원조국의 수요(need)를 파악하고, 일본정부의 원조방침과 일본의 기술적우위성을 파악하여, 일본이 행하는 원조로서 유익하고 효과적인 안건을 제안함으로써 실제 프로젝트에서 건설업체나 제조업체를 관리하고 물류기능을 제공하는 등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해왔다.

2.2 일본 ODA의 배분정책과 특징

우선, 일본의 ODA 활동에서 법적 근거는 ODA대강이라고 할 수 있다. ODA대강의 대외원조 기본정책에서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목표를 밝히고 있으며³⁾, 이 다섯 가지 정책을 바탕으로 각 기구별 협의를 거쳐 원조정책이 수립되고 반영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은행에서 유상원조를 받아 경제개발을 추진했던 자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상원조의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유상원조가 피원조국의 자구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정부가 우선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의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忠商社가 安宅産業을 흡수합병한 시점에서 9사를 종합상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9사는 三菱商事, 三井物産, 住友商社, 伊藤忠商社 丸紅, 日商岩井, 兼松江商, 토멘, 니치멘이다. 이 중에서 兼松江商는 1990년에 兼松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정보처리기술, 에너지, 철강, 플랜트 섬유 등 분야에 경영자원을 집중한 결과 종합상사에서 전문상사로 분류되고 있다. 2003년에서 2004년에 걸쳐 日商岩井가 니치멘을 합병하고 상호를 双日로 변경했다. 2006년에는 토멘이 豊田通商을 합병하여 신회사명을 豊田通商으로 명명했다. 이상과 같은 변천을 거쳐 2006년 이후, 대표적인 종합상사는 三菱商事, 三井物産, 住友商社, 伊藤忠商社 丸紅, 双日, 豊田通商의 7사를 가리키며, 여기서도 三菱商事, 三井物産, 住友商社, 伊藤忠商社 丸紅를 글로벌 지식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상사로 간주한다.

3) 일본은 ODA 대강을 원조의 기본법적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다음의 다섯 가지 기본정책이 바로 일본 원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①개도국의 자조(self-help)노력 지원, ②개인에게 집중한 “인간안보”의 측면을 강조, ③특히 여성과 같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정의의 확보”, ④ 개도국 발전을 돕기 위해 “일본의 경험과 전문가의 이용”, ⑤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과 협동이 표명되어 있다(외무성, 2013, p.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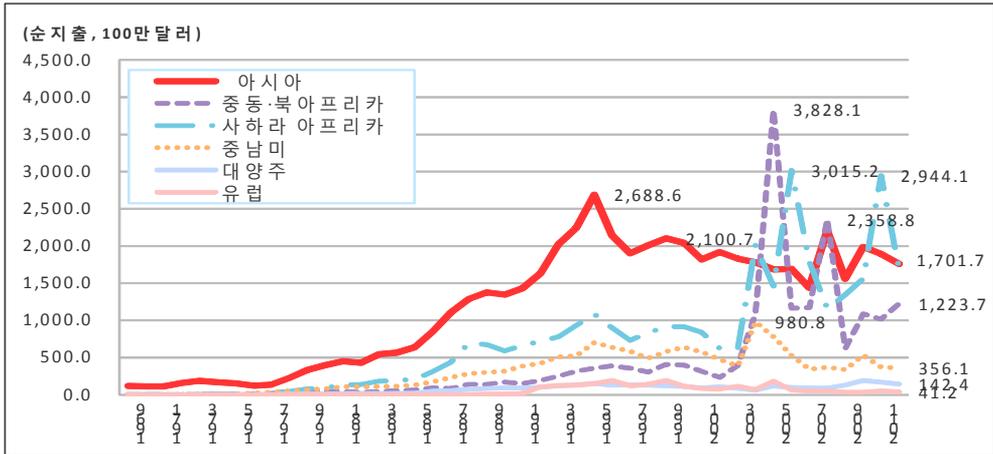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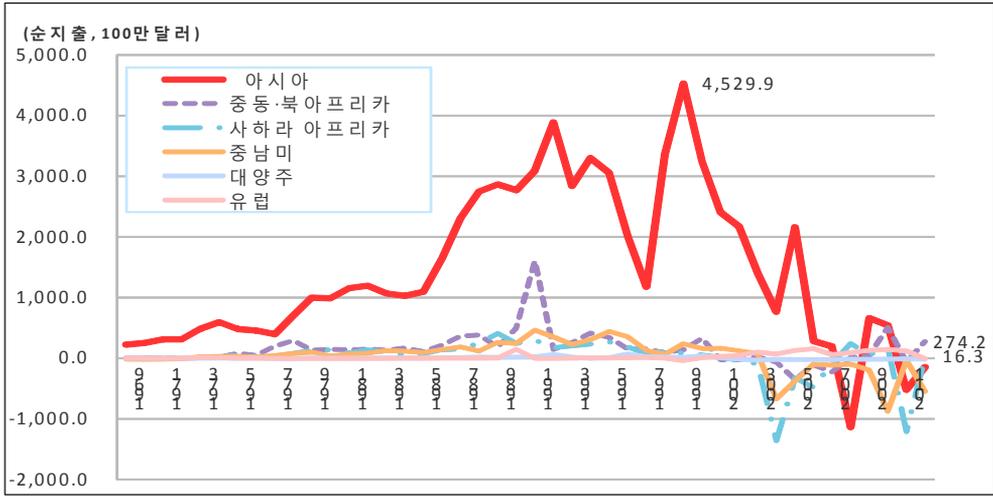
자료: <http://data.oecd.org/oda>

<그림 1> 일본의 2국간 ODA 지출 추이(상:지역별, 하:유형별)

또한 일본정부는 표면적으로는 개도국 요청주의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원 프로젝트 자체가 일본의 무역업체, 제조업체, 특히 종합상사, 기술이나 정책에 영향을 받아 일본에 유리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⁴⁾. 과거 일본의 양자간 원조의 3분의 2이상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일본의 기술적 기준과 사업관계를 피원조국에서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⁵⁾.

4) 김성태(2007), p.445

5) Arese(1994), pp.177-178



자료: <http://data.oecd.org/oda>

<그림 2> 일본의 지역별 2국간 ODA 지출 추이(상:차관, 하:증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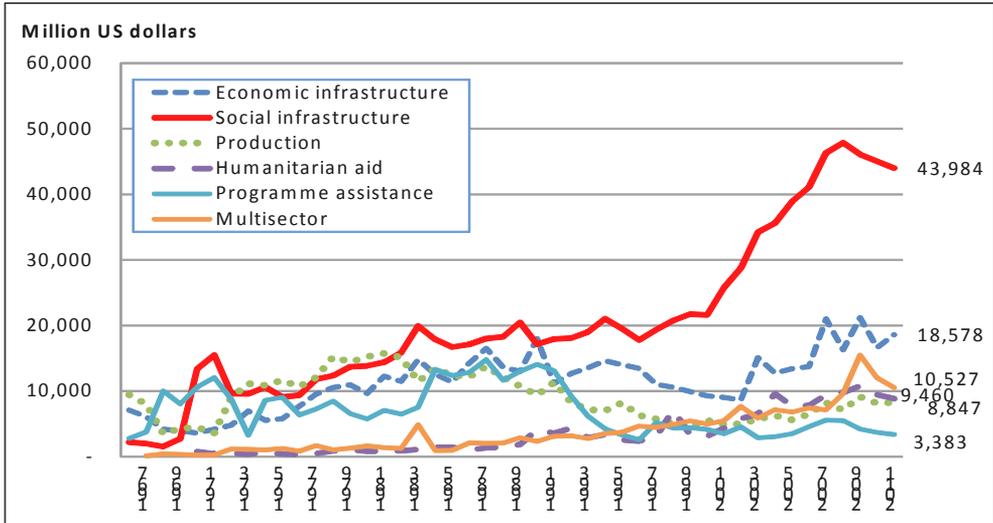
일본 원조의 첫 번째 특징은 지리적 편중성이다. <그림 1, 2>에서 보듯이 일본 ODA는 전통적으로 아시아지역에 집중적으로 공여되어 왔다. 전후 배상원조의 성공적인 협상은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원조공여의 집중화 현상을 낳았고, 이는 오늘날까지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시아 집중현상은 유지되고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 75내지 98%에 달하는 ODA가 아시아 지역에 공여되었으며, 그 후 80년대 초반까지 60%이상, 2000년대 초반까지 50%정도가 아시아에 공여되었다. 그 후 2000년대 들어서 아프리카에 대한 무상원조가 증가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순 지원액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차관도 아시아에 대한 지역

배분 비중이 높으며, 무상원조보다도 큰 비중으로 차관이 2000년대 말까지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공여되었다.

이렇게 일본 ODA의 공여가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실시된 것은 아시아에서 확고한 정치·군사적인 입지 확립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실제로 일본이 아시아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을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현재도 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후 초부터 아시아를 판매시장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역으로 규정하고, 1970년대 이후 일본의 빠른 경제성장 및 경제 확대와 더불어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에 따라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를 일본의 국제생산 네트워크로 편입하는 통상전략을 추진해왔다. 즉, 70년대 및 80년대에 걸쳐서 자동차 및 전기전자 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통한 국제생산 네트워크 구축에 ODA를 적극 활용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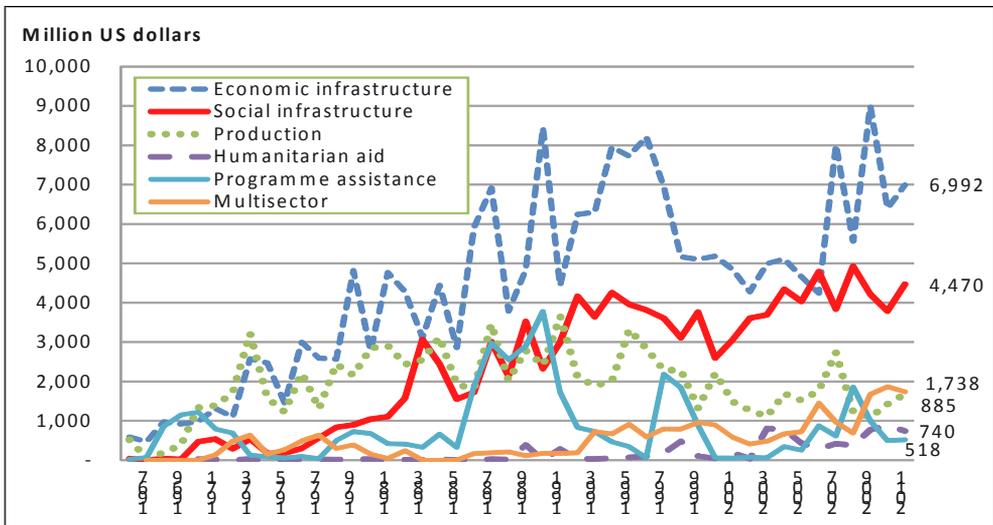
1990년대 중후반을 전후로 원조의 양은 줄어들었지만, 원조의 질적 향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피원조국의 양상이 단순히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도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가능하다.

일본은 원조의 다섯 가지 기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개도국에게 빈곤감축 원조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원조를 실시해왔다. 이러한 원조는 개도국의 ‘자구노력’ 지원과 함께 민간부문의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아시아에 많은 원조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낳았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완화되어 아프리카 지역까지 원조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와 함께 기술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원조가 양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기술협력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1하의 그림). 기술협력의 경우, 민간기업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인프라 시스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원조가 경제적인 측면의 원조라는 점을 보여준다.



자료: <http://data.oecd.org/oda>

<그림 3> DAC의 분야별 원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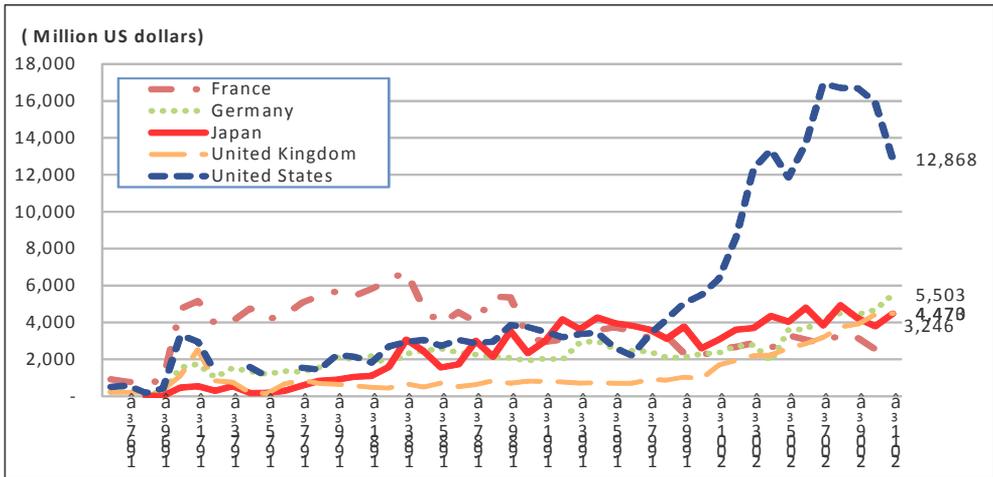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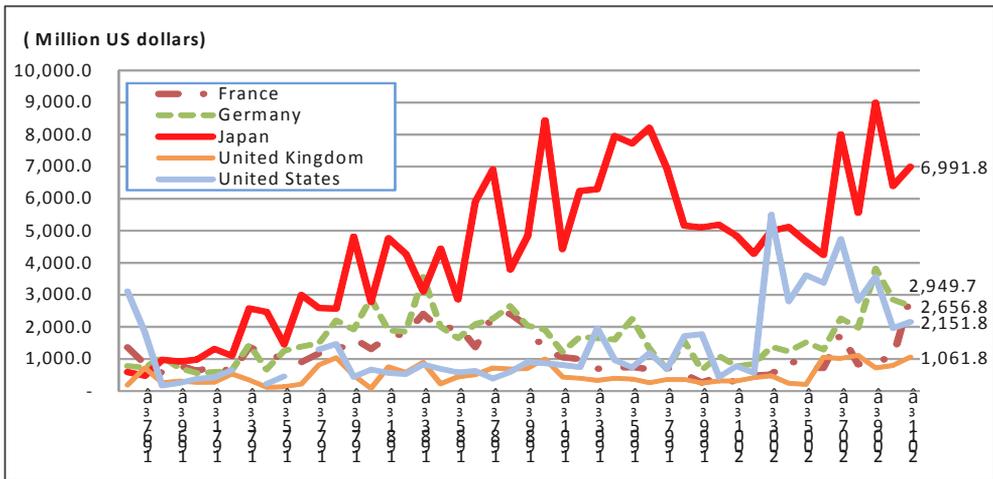


자료: <http://data.oecd.org/oda>

<그림 4> 일본의 분야별 원조 추이

두 번째 특징은 경제성장 중시, 경제 하부구조 중심의 원조이다. <그림 3-6>에서 보듯이 일본의 ODA공여는 전 기간(1969-2012년)을 통하여 경제하부구조, 즉 경제 인프라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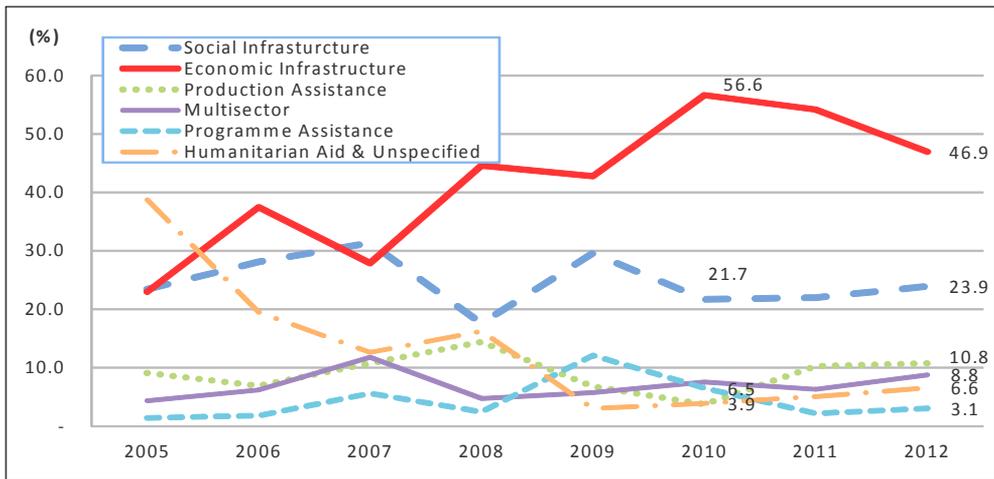
분배가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국가들이 사회하부구조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은 경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배패턴은 부분적으로는 경제발전에서 실질 경제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일본의 선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원조에 얼굴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본 관리들은 적절한 인프라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http://data.oecd.org/oda>

<그림 5> 주요국의 경제(상) 및 사회(하) 인프라 원조 추이

일본이 경제하부구조와 산업생산부문에 원조분배를 집중하는 것은 민간기업들에게 분명한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결국은 원조가 일본의 국가경제에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 따라서 일본은 상대국의 국고에 자금을 배분하지 않고(재정지원형원조), 유상 및 프로젝트형 지원이 많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인프라 지원을 중시해 왔다. 일본의 대 아시아 원조에서도 경제하부구조, 즉 인프라에 대한 원조가 특히 많은 것은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수출시장 및 자원 등의 수입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면서 동남아시아를 일본의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화하고자 하는 통상전략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료: <http://data.oecd.org/oda>

<그림 6> 일본의 대 아시아 분야별 원조(%)

3. 산업통상의 변천과 ODA 및 종합상사의 역할

3.1 전후 부흥기 및 고도성장기(전후-1970년)

제2차 대전 후 일본경제는 재건, 재공업화, 경제부흥기(1946-51년)로 경공업 중심으로 성장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1차금속, 일반기계, 전기기계, 수송용기계가 일본경제를 리드했으며,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등 합리화의 결과 생산성이 크게

상승하여, 「이와토경기(岩戶景氣)」을 포함한 고도경제성장기 제1기(1955-60년)에 냉장고, TV, 승용차의 생산은 각각 50배, 34배, 12배 증가했다.

1950년대 전후 일본은 에너지 자원, 원재료 및 외화 부족이 심각했다. 경제는 주로 수출입에 의존했으며, 일본은 ‘무역입국’을 선언하고 각종 수출장려책을 실시하여 수출 진흥을 통해 연평균 9%의 높은 실질성장률을 달성했다. 수출품은 주로 섬유, 잡화였으며, 수입품은 재공업화에 필요한 원재료와 자본재였다. 또한 수출품은 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중소기업은 직접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에 수출 대상국의 시장개척이나 거래를 위한 실무는 종합상사가 담당했다. 또한 원자재의 수입에서도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와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종합상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⁶⁾.

1950년대 중반 이후 60년대를 통하여 일본은 에너지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철강, 기계, 선박, 화학 등)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왕성한 설비투자과 기술도입 및 혁신(「이자나기경기; いざなぎ景氣」, 1965.10-1970.7, 57개월 동안에 설비투자가 3배나 증가했음)으로⁷⁾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어 철강산업과 함께 일반기계, 전기기계, 수송용기계 등 기계산업이 제조업의 성장을 리드했으며, 바로 자동차 등 이들 산업이 수출산업을 대표했다. 이와 같이 투자와 생산과 국내시장의 활발한 확대순환이 실현됨과 동시에 수출과 수입이 증대하면서 일본경제는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했으며,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일본경제는 연평균 10%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지속한 시기로 수출이 급속하게 증대했다(제조업 생산의 20~30%가 수출되었음). 이에 따라서 전후 회복을 마친 일본은 더욱 더 산업의 근대화 고도화 추진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 확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어 개도국에 대한 원조(ODA)도 수출구매력 확대를 의도하여 시행되었다.

고도성장의 지속과 함께 일본 메이커(제조기업)는 설비투자의욕이 왕성하여 해외로부터 새로운 설비 및 최신 기계기기(기술)의 도입이 최대 관심사였다. 이를 위해 종합상사는 해외정보 수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지점의 강화 및 충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술전문가를 보강하고 서비스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함으로써 수입 업무에서부터 자금조달(finance)과 용자, 기술도입의 교섭, 계약 성사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종합상사가 담당했다(中谷 1988, p.52).

또한 종합상사는 금융상, 세계상의 특별조치 및 외화자금할당범위의 확대 등 정부의

6) 일본 수출 진흥의 침병으로서 상사의 역할이 인식되어 1952년 제4차 吉田내각에서 일본정부에 의한 상사의 지원과 강화책이 제안되었으며, 종합상사에의 수출계약취소준비금제도, 해외지점용자산의 특별상각제도 등의 세계우대조치 등이 도입, 실시되어 종합상사가 일본 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음.

7) 1956년부터 70년까지 기술도입을 위해 해외에 지급한 기술료 누계액이 25억 달러를 초과했음.

종합상사 지원(1953년 종합상사강화책)하에서 메이커와 협력하여 소재형제품의 수출 확대를 꾀했다. 즉, 기술력과 생산력을 갖추게 된 일본 제조업은 신상품대책으로써 해외시장개척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자사 신제품을 수출하고 싶은 메이커로서는 당초 판매량이 적고 판매코스트 등에서 국제경쟁력이 없어 수출이 힘들었다. 이에 해외 각지에 구축한 네트워크를 풀로 동원하는 강력한 판매력을 보유한 종합상사가 개입하여 규모의 장점을 발휘하여 특히 철강, 화학제품, 섬유원료와 같은 소재형 제품에서 국제경쟁력과 판매력이란 큰 무기를 활용하여 수출을 담당했다(內田 1988, p.31). 그리고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기기의 수출에서도 종합상사는 메이커와 협력하여 현지에 판매회사를 설립하여 세밀한 마케팅과 애프터 서비스 실시를 통해 수출을 증대 시켰다. 이 외에도 종합상사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던 섬유, 잡화 등 경공업에서는 임금이 싼 동남아시아에 해외생산을 기획함으로써 종합상사, 일본 메이커, 현지자본과 합병으로 해외투자를 실시하여 섬유산업의 해외기술이전의 가교역할을 담당했다.

이 시기 종합상사는 상거래기능(도매기능)뿐만 아니라 해외 네트워크의 확대(일본의 대표적인 종합상사는 각각 100개소에 달하는 해외지점망을 구축)를 통해 보다 고도의 물류네트워크 및 해외시장개척, 고도의 정보제공 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전자기기, 자동차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재 수출을 담당하게 했다.

또한 이 시기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기로 자원, 원료, 재료, 중간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는데 종합상사는 성장에 필요한 광물자원의 수입뿐만 아니라 ODA를 활용하여 천연·에너지 자원 개발수입을 추진했다. 전후 부흥기 종합상사는 종합상사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해외 각국에 설치된 지점망 즉,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ODA와 연계하여 플랜트 및 공업제품을 수출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 원료, 산업기계, 설비, 기술을 조달하여 일본 산업에 제공하고 에너지자원과 식량 수입을 담당했다. 이처럼 종합상사는 전후 일본경제의 재건, 부흥기에 수출진흥의 첨병 및 해외시장개척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경제 부흥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1950년 중반 이후 고도성장기에도 종합상사는 ODA를 활용하여 일본경제에서 필수품인 자원, 원료 등의 개발수입을 추진하였고, 해외네트워크를 통하여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에 필요한 설비기계 수입과 기술도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고도경제성장을 촉진했다. 예를 들어 <사례1>의 미쓰이물산의 ODA를 활용한 말레이시아 설탕플랜트사업을 들 수 있다. 원료 및 연료의 수입은 ODA를 매개로 하여 추진되었는데, 이 당시 ODA 공여는 전후 배상의 측면도 있었지만 원료 및 연료의 조달, 수입 목적에서 주로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에 집중적으로 공여되었다.

<#사례1> 미쓰이물산의 ODA를 활용한 말레이시아 설탕플랜트사업

미쓰이물산은 프로젝트의 발굴, 오거나이즈, 기기, 자재, 기술, 서비스의 조달, 파이낸스 등의 기능 활용하여 ODA 지원으로 1962년에 말레이시아 설탕 플랜트사업을 수행했다. 미쓰이물산은 日新제당과 협력하면서 플랜트 관련기업의 선정, 소요자금의 시산 등 엔지니어링관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日新제당을 비롯한 일본측 기계, 건설 등의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획 전체의 오거나이저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湯 2011, p.54).

3.2 1970년대(1973-1984년)

1970년대는 닉슨 쇼크로 인한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제 1, 2차 오일쇼크 등 일본경제를 뒤흔드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저성장시대로 돌입하였다(1960년대는 연평균 10.7%로 성장했으나 위기 이후 10년간 73-83년, 연평균 4.0%의 성장률을 기록했음). 석유위기 이후 대부분의 원·연료를 해외에 의존하는 일본 산업이 입은 영향은 강렬했으며, 소재형산업의 타격이 컸으나 고가공형산업은 합리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소재형산업의 타격이 컸으며, 경공업의 소재형산업에서도 석유위기의 영향과 함께 한국, 대만 등 중진국의 캐치 업으로 영향을 받았다. 또한 중진국의 캐치 업은 중화학 및 경공업에서 저가공형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⁸⁾. 한편, 중화학공업에서 기계산업, 즉 정밀기계, 선박을 제외한 수송기계, 전기기계산업의 성장이 컸는데, 이는 합리화 노력과 함께 수출수요 및 국내소비수요의 증대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들 산업이 70년대 중반 이후 수출을 주도했다.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이 지속되던 196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를 비롯하여 해외 광물자원에 대한 국내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사의 해외자원관련투자가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1970년대 2차에 걸친 석유위기로 자원의 안정공급이 상사의 중요과제가 되면서 외국의 자원을 매입하여 수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 스스로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자원 확보에 노력하는 개발수입 사업이 중심을 이뤘다. 이 시기부터 자원의 개발수입 및 대체에너지 개발 등 거대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 정부의 지원과 ODA의 활용을 통해 석유 및 가스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민간 종합상사가 국책회사와 한 축을 이루면서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을

8) 섬유산업은 70년대 전반까지 확대했지만 후반부터 쇠퇴하여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메이지시대부터 전전 및 전후에 걸쳐서 일관되게 일본경제의 중핵을 담당해온 섬유산업은 이 시기에 전인역할이 종료되었음.

담당했다. 예를 들어, <사례2> 플랜트 수출과 원유 수입, <사례3>의 미쓰비시의 LNG사업을 등을 들 수 있다.

종합상사는 단순히 자원을 수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개발단계에서부터 물류에 이르기까지 물품의 이동경로 전 과정에서 복수국가, 관계기관, 기업 등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개발 사업에서 해외네트워크와 정보력을 활용하여 오거나이저의 역할을 담당해왔다(일본무역회HP). 또한 이 시기에는 ODA를 통한 개도국 인프라 정비사업, 즉 대형플랜트 수출 확대에서도 상사의 공헌이 컸다. 당시 평판이 높아진 일본의 기술력과 종합상사의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계 각지의 대형플랜트 건설정보를 빠르게 파악하여 일본기업과 외국정부 및 외국기업 간 교섭업무, 공사관리, 플랜트의 운전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일본무역회HP).

또한 석유위기 이후 종합상사는 전통적 상품중심의 매출 증가의 정체와 플랜트 수출 등의 대가로 상대국 산품 수취를 의무로 하는 거래(counter purchase)가 증가하자 삼국간 무역 확대를 통해 이를 해결해왔다. 카운터 퍼체이스 등은 매우 다양한 상품 취급과 해외거래처를 보유하는 종합상사만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품목은 석유, 곡물, 유지원료, 면화 등의 국제상품이 대부분이었으며, 공업제품의 삼국 간 무역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적었다. 3국간 무역은 70년대부터 급속하게 증가했는데, 종합상사 9사의 전 거래에 접하는 3국간 무역 비중은 65년 9.4%, 70년 12.0%, 73년 16.1%, 91년 25.8%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종합상사는 막대한 자금과 위험부담이 큰 자원개발 및 플랜트 수출에서 정부지원(ODA) 하에 동남아시아 및 중동지역에 플랜트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얻은 원유, 곡물, 유지원료, 면화 등을 자국으로 수입하거나 유럽, 미국 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사례> 플랜트 수출과 원유수입

가격이 급등한 석유수입대금 지불로 수입합계에서 광물성연료의 비율이 1/4정도에서 일거에 절반 정도까지 급등하여 국제수지의 악화가 우려되었으나 그 해결책이 플랜트의 수출이었다. OPEC는 1974년 한 해 동안에만 600억 달러라는 오일 머니를 벌어들였는데, 이 돈을 자국의 공업화에 쏟아 부었다. 일본의 대 중동 플랜트수출은 일거에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종합상사는 이 플랜트 수출에서 그 시작에서 완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오거나이저로서 기능을 발휘하였다. 석유위기 이후 일본은 석유의 확보자체가 큰 문제였으나 중동에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상사(미쓰비시상사)를 통해 DD원유(direct deal oil)를 경제협력(플랜트 수출)을 담보로 조달 수입하여 석유업계에 공급하였다. 즉 플랜트 수출이라는 경제협력(ODA)으로 얻은 수입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원유를 수입하여 일본 석유업계에

공급했다(中村 2012, pp.102-103). 일본의 원유수입에서 상사의 비중은 1965년 10%에서 81년에는 38%까지 급증했다(이에 대해 동 기간 메저 비중은 62%에서 33%로 급감했음).

▷사우디 석화(石化) 프로젝트와 메타놀 사업

1973년 미쓰비시와 사우디의 석유광물자원공단(PETROMIN) 간에 FS(feasibility study)에 관한 양해각서가 교환된 이후 추진된 미쓰비시상사의 사우디석화(石化) 프로젝트에는 미쓰비시상사를 비롯한 일본의 51사가 공동출자하여 1979년에 사우디석유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1981년에 사우디석유화학(SPDC)으로 전환되었다. 일본 측 출자액 480억 엔 중 45%를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이 출자했으며, 81년 9월에 SPDC와 SABIC(Saudi Basic Industries Corporation)의 합병회사 Eastern Perochemical Company(SHARQ)가 설립되었다. 81년 11월에 SPDC와 페트로민 간에 인센티브원유)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석유위기 이후 일본으로 원유가 공급되었으며, 1985년에 각 플랜트가 완성되어 EG와 LLDPE가 일본 등으로 출하되기 시작했다.

사우디 석화 프로젝트와 함께 이토추상사, 미쓰비시가스화학을 중심으로 1977년 11월에 설립된 일본사우디아라비아 메타놀주식회사(JSMC)와 SABIC사 간에 1979년 11월에 합병계약이 체결된 후 각각 50% 출자로 1980년 2월에 AR-RAZI(Saudi Methanol)이 설립되었다. JSMC는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이 30%, 미쓰비시가스화학이 47%, 이토추상사, 스미토모화학 등이 23% 출자로 설립되었다. 81년 1월에 SABIC사 사이에 인센티브 오일 계약이 체결되어 일본으로 원유가 공급되었으며, AR-RAZI에서 생산된 제품은 사우디, 일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¹⁰⁾.

<#사례3> 미쓰비시의 LNG 사업(미쓰비시상사 홈페이지)

천연가스 개발사업은 가스전의 해저 등으로부터 산출되는 천연가스를 마이너스 65도 냉각하여 액화시켜 운반한다. 가스전 외에 액화플랜트, 전용운반선, 수용기지, 파이프라인 등의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대상이 된다.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종합상사는 정부지원과 ODA의 활용을 통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오만, 사할린 등에서 LNG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1969년 일본에 처음으로 알래스카에서 액화천연가스

9) 인센티브원유란 사우디아라비아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한 대형프로젝트를 실시할 때 선진국으로부터 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해 참가외국기업에 대해 투자액에 응해 페트로민사로부터 원유 또는 제품을 공급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10) 사우디 석화 및 메타놀 프로젝트는 『日本の石油化学最近30年史』(<http://www.knak.jp/livedoor/25/contents.html>)를 참조했음.

(Liquefied Natural Gas : LNG)가 도입되었다. 이 때 일본의 전력, 가스회사에 LNG 수입을 소개하고, 수입대행 및 LNG선의 수배 등을 담당했던 것이 미쓰비시의 LNG사업의 출발점이다.

미쓰비시상사의 LNG사업 특징은, 약 80개국에 이르는 200개가 넘는 사업거점을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투자를 하여, LNG를 생산하는 액화설비 및 상류부문인 가스전개발에 대한 사업 참여, LNG선의 보유운항이라는 각 프로세스의 현장에 참여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밸류 체인(Value Chain)’이라고 하는데, LNG사업의 각 현장을 얹으로써 마켓 전체의 움직임 및 다양한 고객의 수요(needs)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축적된 노하우 및 지식은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미쓰비시상사는 40년 이상에 걸쳐서 이 밸류 체인을 확충하면서 일본으로 LNG의 안정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LNG를 현지, 아시아 국가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그림 7 참조).



자료: 미쓰비시상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

<그림 7> 미쓰비시의 LNG사업 프로세스별 투자현황

<그림 7>에서 보듯이, 1972년부터 생산을 개시한 브루나이 LNG사업은 플랜트 건설, 탱크 제조를 포함하여 소요자금이 수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투자였다. 브루나이의 바다에서 산출하는 천연가스를 냉각·액화하여 LNG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1969년에 로얄 더치 쉘과 미쓰비시상사가 합병으로 사업회사를 설립하여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1970년에 도쿄가스,

도쿄전력, 오사카가스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되어 72년 이래 LNG를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게다가 2002년 이후, 액화 판매부문만이 아니라 수송 상류부문으로 기능을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브루나이 LNG프로젝트를 통하여 상류(가스전개발), 중류(가스 액화), 하류(수송 판매)를 연결하는 밸류 체인의 구축을 실현했다. 브루나이 LNG사업 이후, 미쓰비시상사는 말레이시아, 오만, 사할린 등에서 대형프로젝트에 참가하고,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프로세스를 관통하는 LNG밸류 체인을 실현했다.

3.3 1980년대(1985-1994)

1980년대 초반에는 2차에 걸친 오일 쇼크의 후유증으로 세계경제 침체와 함께 일본경제도 침체에 빠졌지만,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내수중심의 대형경기가 도래하면서 버블경제시대로 진입했다. 80년대 후반에는 일본경제의 견인역이며 수출산업이기도 한 수송용기계의 성장이 둔화되기는 했으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기기계의 성장이 매우 컸으며, 이 외에 일반기계, 수송용기계의 성장도 두드러졌으며, 이들 3개 산업이 수출을 주도했다. 이와 같이 산업은 철강, 선박, 기계, 화학 등 중후장대형산업에서 전기전자 등 경박단소형산업으로 구조변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이 시기에 엔고 및 무역불균형으로 인한 미일무역마찰 지속 등으로 일본 메이커의 해외진출, 해외현지생산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종합상사는 시장개척과 해외진출 관련 오거나이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田中 2012, pp.169-172). 즉, 일본의 전자기기 메이커는 1980년대에 ASEAN 및 중국 각 지역에서 해외생산을 확대해왔다. 전자부품의 종류와 사양은 무수하게 많으며, 해외에서 생산된 일본 메이커의 주 조달처인 일본계전자부품 메이커는 아시아 각지에 산재해 있다. 종합상사는 조직과 업무의 국제성을 활용하여 이러한 품목과 생산자의 다양성에 대응해가면서 공급망을 합리적으로 집약함으로써 전자부품 및 기관을 증개하는 유통을 담당했다. 또한 종합상사는 미일무역마찰을 계기로 수입축진 정책에 대응하고, 수입확대를 추진했다. 그 결과 종합상사가 취급하는 수입품은 식료품, 음료, 스포츠용품, 장식품, 의료 등에서 증가했으며, 브랜드품목의 수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고와 무역마찰로 메이커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해외직접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종합상사의 제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 예를 들면 제조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고, 서비스산업, 해외합작벤처사업 등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종합상사의 취급품목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 컴퓨터, 의료기기 등이 증가

했다. 종합상사는 자동차, 전기전자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을 담당했으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피트니스 클럽, 금융서비스, 영화프로덕션 등의 서비스사업에도 진출했으며, 거래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또는 자본출자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80년대에도 종합상사는 지속적으로 ODA 등 정부지원을 활용하여 자원개발과 공업단지개발, 플랜트를 수출하고, 미일무역마찰을 계기로 수입촉진정책에 대응했다. 이와 더불어 엔고로 인한 메이커의 해외진출 지원과 종합상사의 조직과 업무의 국제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품목과 생산자의 다양성에 대응해 가면서 공급망을 합리적으로 집약함으로써 전자부품 등을 중개하는 유통을 담당했다.

3.4 1990년대(1994-2002)

1990년대는 동서냉전이 종결을 맞이하여 구공산주의국가들의 시장경제화가 시작되었으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경제가 급성장하고 글로벌화, 정보화, 비국경화를 키워드로 대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中谷 1998, p.65). 일본에서는 1990년대 80년대 후반의 버블경기가 붕괴되고, 「헤이세이불황,平成不況」이 시작된 시기로 모든 산업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견인역할을 담당했던 전기기계에서 조차 제로성장을 기록했으나, IT 발전으로 정보화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글로벌화 했다.

이 시기에도 역시 원유, LNG, 석탄 등 천연자원이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어패류, 목재, 섬유, 의복, 피혁 등 저가품이 주로 아시아로부터 수입이 증가했다. 자동차 및 그 부분품이 수출을 주도했으며, IT 관련 제품과 그 부분품, 철강 등이 주로 수출되었다. 이와 같이 IT와 자동차산업의 수출이 당시 불황에 빠진 일본경제를 겨우 지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0년대에는 거품경제가 붕괴하면서 불량채권상각이 큰 경제과제로 부상했으며, 종합상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분야 및 개별사업을 선별해가면서 이에 대응했다. 더욱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응하기 위해 <사례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해외사업의 글로벌 전개 추진, 특히 동구권국가 및 동남아시아 등의 인프라 정비 등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투자 및 ②적극적인 해외 자원·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2000년대 들어서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또한 ③해외 대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④국내 사업에서는 대형종합슈퍼(소매사업)의 재건에 출자하여 영향력 강화로 대응해왔

11) 종합상사는 해외 대기업과 거래관계를 강화하고, 1980년 후반부터 시작된 이후, 미쓰이물산이 맥도널다 글러스 등 미국 유력기업과 제휴하거나 미쓰비시상사가 미쓰비시그룹과 다이무라 벤츠 그룹과 포괄적 제휴를 주도하거나 그 연장선에서 대형 M&A, 즉, 각종 사업매수가 추진되었다.

다)¹²⁾(淺野 2014, pp.11-12).

① 사업투자를 축으로 한 종합상사의 해외사업 글로벌 전개로서 동서냉전의 종결과 함께 러시아·동구권국가 시장에 대한 진출과 경제성장 속도를 급속하게 올린 중국 등 동·동남아시아 국가 시장 확대를 들 수 있다. 종합상사는 경제협력(ODA) 및 오거나이즈 기능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IPP(독립민자발전소)¹³⁾, 공항·도로건설·수도사업 등의 민할(민간기업을 활용한) 인프라 정비, 공업단지 개발 및 판매 등을 추진했다.

전력공급으로 대표되는 산업과 생활면에서의 사회기반은 산업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를 수용하기 위해 불가결하다. 물(水)과 전력의 안정적 공급 없이는 제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종합상사는 전 세계에서 지열, 바이오매스,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 등에서도 IPP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② 해외 자원·에너지에 대해 계속 투자를 증대시켰으며, 아직 자원가격 상승이 시작되지 않은 1990년대에 ODA 및 정부지원을 활용하여 천연가스, 원유의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와 같이 종합상사는 일본정부 지원(ODA)과 각종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정보수집, 기획·입안, 자금조달, 원료·자재의 조달, 건설수탁, 제품 판매처의 개척 등 오거나이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해외진출사업 지원 및 전개, 천연자원 프로젝트의 추진 등 사업 전개를 통해 일본경제를 지탱해왔다.

<사례> 인도네시아 발전소 및 태국 에틸렌 플랜트 사업

스미토모상사는 1991년 미국의 GE사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스터빈발전소 건설을 수주하였는데, 건설자금 2억 달러는 일본수출입은행¹⁴⁾의 협조용자. 일본의 무역보험을 적용하여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1992년 스미토모상사는 미국의 엔지니어링회사 스톤 앤드 웹스터사와 한국의 엔지니어링

12) 국내소매사업 투자는, 헤이세이불황 하에서 대형종합슈퍼가 경영악화에 직면하여 자회사 편의점주식을 매도할 때, 종합상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편의점업체에 진출하게 되었다. 즉, 종합상사는 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투자를 행하여 그 자회사인 식품도매를 중핵으로 관계회사의 통합을 추진하여 중간유통에서부터 소매까지를 영향 하에 두게 된다.

13)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란 민간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해 발전소를 건설한 후 일정 기간 소유·운영하며 전력을 판매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따라서 EPC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업 기획, 금융 조달 등 다방면에서의 역량이 요구됨. 여기서 EPC란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임.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함. 일괄수주를 의미하는 턴키(turn-key)와 비슷한 개념임.

14) 일본수출입은행은 1950년 발족했으며, 1999년에 해외경제협력기금에 통합되어 국제협력은행(JBIC)이 설립되었으며, 그 후 2008년에 이 은행의 국제금융부문은 일본정책금융공고에, 해외경제협력부문은 국제협력기구(JICA)에 각각 통합되었음.

사 대립엔지니어링사와 제휴로 타이 에틸렌 플랜트를 수주하였는데, 건설자금 5억 달러로, 미국이 기본설계, 한국이 현지공사를 담당하고, 플랜트용 기기는 미국, 한국, 일본에서 조달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사례5> 마루베니의 EPC발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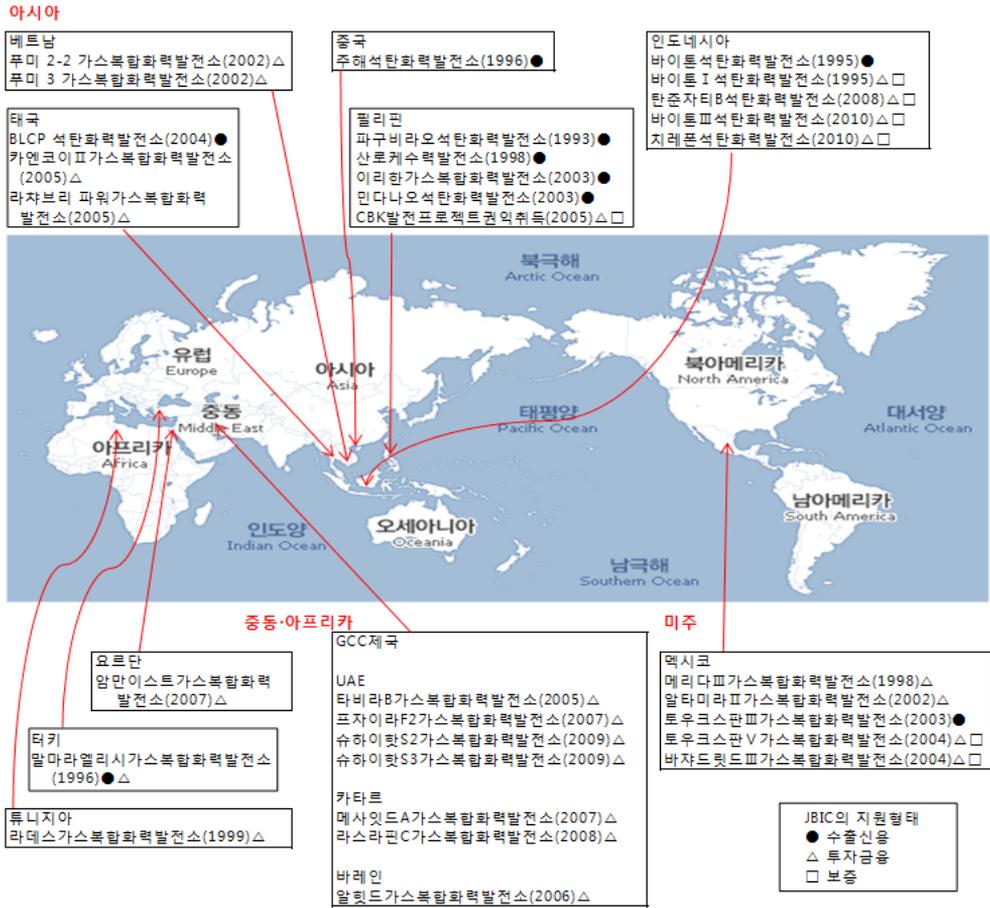
종합상사가 사회기반설비사업에서 오거나이저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EPC 프로젝트이다¹⁵⁾. 이는 국가나 공공기업 등에서 발전설비나 급수설비 등 대규모 플랜트나 인프라의 건설을 수주하여 프로젝트를 조직화하는 사업으로 1980년대 전반부터 개시되었다.

마루베니는 2006년 10월 중동 카다르에서 물과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의 건설과 운영이라는 투자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은 수도 도하근교의 메사이트공업지구에 2천 메가와트의 발전 플랜트를 건설하여 25년에 걸쳐서 카타르수전력공사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프로젝트이다. 발전설비의 건설공사는 스페인기업이 담당하고, 발전설비의 소유와 운영은 마루베니가 카타르석유, 카타르발전조수회사와 공동수행, 총사업비는 23억 달러에 달하며, 자금조달은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조달했다(中村 2012, pp.106-107).

<#사례6> 종합상사의 IPP전력사업

EPC는 그 자체는 프로젝트를 조직화하는 업무로 지속적인 사업경영에 대한 투자는 아니다. EPC에서 발전한 것이 발송전설비를 정비하여 발전하여 판매하는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독립전력사업자)사업으로(中村 2012, p.107), 파이낸스의 수배는 소요자금과 리스크의 크기 등의 관점에서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이나 기타 공적기관 등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상사는 스스로 자금출자와 함께 EPC사업을 통해 얻은 다양한 자금조달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계 각 지역에서 IPP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5) EPC란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임. 설계는 엔지니어링회사에 발주하고, 기계 및 자재는 메이커 등 다양한 종류의 공급자로부터 조달하고, 자금은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조건으로 용자를 조합한 ‘파이낸스조성’에 의해 소위 금융기관을 조직화하여 조달함. 그리고 시공은 대부분 해외의 건설업자에게 발주함. 원래 종합상사는 발전기 등 기계류 단품거래를 중개하고 있었음. EPC는 그로부터 사업분야의 다양성과 사업전개의 국제성이라는 종합상사의 두 가지 특징에 의해 발전한 사업형태임.



주: JBIC를 통한 엔찬관 및 해외투융자 등의 해외경제협력업무는 2008년 10월부터 JICA로 승계되었음.
 해외투융자는 주로 민간섹터가 개도국에서 실시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출자하는 것을 말함

자료: 일본국제협력은행, 「総合商社による電力事業の海外展開」, JBIC홈페이지

<그림 8> 종합상사가 관여한 IPP안건 일람(JBIC의 지원에 의한 안건)

민자발전사업은 1990년대 들어서 세계적으로 추진된 전력사업의 규제완화, 민영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종합상사는 과거의 글로벌한 전력, 자원, 플랜트분야에서 프로젝트 오거나이저로서의 실적과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IPP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림 8>은 일본 국제협력은행의 지원에 의한 안건으로 마루베니, 스미토모상사,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 등 종합상사가 세계 각지에서 전개하고 있는 IPP사업의 예이다.

3.5 2000년대(2003년 이후)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 이후 2000년대 초반 5년간 일본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제조업에서 거의 모든 산업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철강과 수송용 기계만이 플러스 성장했다. 철강의 성장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수출증대로 인한 것이었다. 수송용기계의 성장과 함께 2002년부터의 경기회복도 오로지 수출주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 시기 자동차가 수출을 주도했으며, 반도체 등 전자부품, 철강, 자동차부품, 광학기기 등이 주로 수출되었다. 수입은 여전히 원유, LNG, 석탄 등 천연자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반도체 등 전자부품, 의류 및 동 부속품, 석유제품 전산 기류 등이 수입되었다.

2014년 현재까지 활동을 통해 종합상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8개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이 8개 기능은 다음과 같이 현재 주로 3개의 기능으로 집약되어 있는데(淺野 2014, pp.12-13), <사례7~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능을 살려서 ODA관련 자원개발 등 대형프로젝트 및 인프라 시스템 수출에서 오거나이저로서 일본경제의 ‘부흥전략’을 지탱하고 있다.

첫째, 상거래기능, 물류기능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는 종래부터 상사의 토대가 되는 기능으로 비중이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해외와 거래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이다. 둘째, 금융기능이다. 본업과 별도로 재테크에 의해 수익원을 확보하여 경영기반을 안정시키고 있다. 셋째, 시장개척기능, 사업개발·경영기능, 리스크 매니지먼트 기능, 정보기능, 오거나이즈 기능을 종합한 기능이다. 정보기능과 시장개척기능을 구사하여 세계 각지의 수요(need)를 수집하고, 사업개발·경영기능과 오거나이즈 기능에 의해 사업투자에 힘을 쏟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기능으로 리스크를 회피함으로써 대형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프로젝트만이 아니라 관민연계에 의한 공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시스템 수출이 최근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현재 종합상사에 있어서 이 세 번째 기능이 가장 중시되고 있는데 종합상사는 수익력 강화 수단으로써 사업에의 투유자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경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종합상사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면서도 그들 과제를 극복하고 현재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지만, 과제 극복수단의 공통사항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잠재적, 동시에 국익에 결부되는 사업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전후 종합상사는 일본경제의 재건, 부흥이라는 역할부터 시작하여 정부의 지원 하에 메이커의 해외 수출 및 수입에 협력하고, 자원이 부족한 일본의 에너지 수요를 시대를 통하여 ODA 및 종합상사의 다양한 기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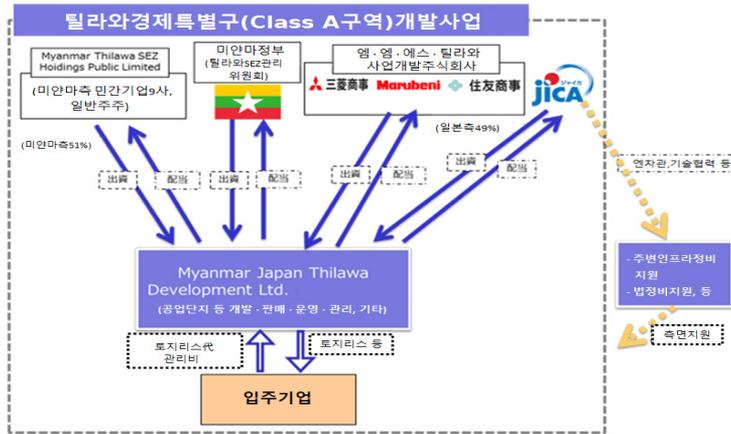
활용하여 수입으로 지탱해 왔다. 또한 80년대 이후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서포트해 왔으며, 현재 일본의 ‘재흥전략’과 관련하여 ODA를 활용한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및 인프라의 시스템 수출에서 오거나이즈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일본의 재부흥을 지탱하고 있다. 이처럼 종합상사가 시대 및 통상 및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재화의 수출입, 사회 인프라 수출, 자원개발 수입,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종합상사가 일반 제조기업과는 다른 종합상사 특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례> 관민연계에 의한 미얀마 기업진출거점 정비사업

본 사업은 관민연계에 의한 기업진출거점 정비 프로젝트로, 일본정부의 ODA자금과 국제협력기구(JICA)의 해외투융자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4년 4월 23일, 국제협력기구(JICA), 미쓰비시, 마루베니, 스미토모상사로 구성된 엠.엠.에스.뿔라와사업개발회사(MMST)와 뿔라와SEZ관리위원회(Thilawa SEZ Management Committee), 미얀마뿔라와SEZ홀딩주식회사(Myanmar Thilawa SEZ Holdings Public Limited) 사이에 미얀마 국가뿔라와경제특별구(Class A구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합병사업계약서가 조인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5월 아베총리가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뿔라와경제특별구의 전력, 항만정비 등 510억 엔의 엔차관, 보건분야를 대상으로 한 무상원조를 약속했으며, 동년 12월 동경에서 개최된 ‘일·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출석한 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만다레이-양곤 간 철도정비, 양곤시상수도정비, 뿔라와경제특별구 접근도로 건설 등 약 630억 엔의 엔차관을 공여하기로 표명했다.

일본 종합상사가 일본정부 및 미얀마 정부와 연계하면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일본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종합상사는 종합상사 본래의 기능을 살려 일본기업 등의 본 공업단지 진출지원, 입주한 기업의 부품 등 원자재조달 지원(물류담당), 생산된 제품의 현지 및 역수입, 제3국 수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진출한 기업의 안착과 성장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경제 및 일본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일본무역회 월보 2013-11, 통상백서 2013).



자료: JICA, 홈페이지

<그림 9> 미얀마 경제특별구 사업 스킴

<사례8> 인도네시아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사업 및 인도의 델리-문바이 간 산업대동맥 사업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수도권 인프라정비와 투자환경정비 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MPA)사업은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45건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 중 2013년까지 실시되는 18건의 우선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3.4조 엔 자금 중 1조 엔이 일본의 ODA를 포함한 외국의 원조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2011년부터 인도의 델리와 문바이를 연결하는 델리-문바이 간 산업대동맥사업(DMIC)이 JBIC의 출자, JICA의 45억 달러의 엔차관 지원, 미쓰비시, 미쓰이, 이토추상사 등 일본 종합상사의 참여로 추진되고 있다(통상백서 2013).

<사례9> 브루나이 가스화학(메타놀)사업

브루나이 최초의 가스화학산업이 되는 메탄올 사업은, 이토추상사와 미쓰비시상사가 중심으로 추진한 일본과의 합병 프로젝트로서, Sungai Liang공업단지(SPARK)에서 2010년 5월부터 조업을 시작했다. 합작회사인 Brunei Methanol Company(BMC)에의 출자 비율은, 미쓰비시가 가스화학(MGC)이 50%, 이토추상사와 PetrolemBRUNEI 산하의 PB Petrochemical이 각25%이며, 메탄올 생산 능력은 연간 85만톤이다.

플랜트는 미쓰비시가스화학/미쓰비시중공(三菱重工)(MGC/MHI) 프로세스로, 건설은 미쓰비시중공(三菱重工)이 담당했으며, 투자액은 약 4억 달러로, 일본국제협력은행 등으로부터의

파이낸스했다. 생산한 메탄올은 한국에 18.0%를 필두로, 태국에 15.0%, 대만에 12.9%, 싱가포르에 12.2% 등 베트남,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 등 주로 아시아국가로 수출되고 있다(JPEC, 2013).

4. 결론과 시사점

일본 ODA는 정치 및 외교적 목적으로도 공여되었으나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국익을 중시하여 공여되어 왔으며, 일본 기업의 수출 및 수입, 해외진출 등과 결부시켜 ODA를 공여해 왔다.

종합상사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면서도 그들 과제를 극복하고 현재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는데, 과제 극복수단의 공통사항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잠재적, 동시에 국익에 결부되는 사업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전후 일본경제의 재건, 부흥이라는 역할부터 시작하여 정부의 지원 하에 메이커의 해외 수출 및 수입에 협력하고, 자원이 부족한 일본의 에너지 수요를 시대를 통하여 ODA 및 종합상사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수입으로 지탱해오고 있다. 또한 80년대 이후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서포트해 왔으며, 90년대 이후 및 현재 일본의 ‘재흥전략’과 관련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및 인프라 시스템 수출에서 오거나이즈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일본의 부을 지탱하고 있다.

종합상사는 전후 일본의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누구보다 먼저 파악하면서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공업제품의 수출 및 원료·자원 에너지의 수입이라는 무역거래에서 시작하여 경제성장,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활동영역을 확대해 왔다. 특히 해외에서 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형프로젝트의 조성 및 운영에서는 현지 정보수집, 안건 발굴, 기획입안, 정부와의 조정, 파트너의 선정, 컨소시엄의 조성, 자금조달, 밸류 체인 구축, 원료·기자재의 조달, 건설, 제품판매처 개척 등 상사가 가지는 각종 기능과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실적을 쌓아왔다.

이와 같이 일본종합상사가 시대 및 통상 및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재화의 수출입, 인프라 수출, 자원개발수입,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종합상사가 일반 제조기업과 다르게 시대 변화에 적응하여 기능을 확충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합상사는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ODA의 전개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종합상사가 일반 기업이 갖추지 못한 기능을 활용하여 ODA 실시에서 중추적

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본경제에 커다란 공헌을 해 왔다. 이에 한국은 ODA를 단지 국제적인 공헌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의 모든 ODA 공여국가가 그러하듯이 한국도 국익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종합상사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한국의 종합상사를 적극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원빈국으로써 원료 및 연료의 개발수입에서 ODA 및 기타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여 종합상사의 해외 네트워크 및 각종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종합상사는 일본 종합상사에 비해 부족한 국제물류기능, 금융기능 등의 기능을 더욱 확충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 및 제도의 개선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결하다.

셋째, 단순한 일시적인 인프라의 수출이 아니라 현재 일본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패키지형 인프라 시스템의 수출과 관련하여 ODA 등의 정부지원의 활용과 종합상사 등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활용과 추진이 요구된다. 즉, 공업단지의 조성 및 이와 관련된 전력공급, 도로망 건설 등 인프라 정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업단지를 조성한 후에 한국 기업 등의 진출을 지원하고, 공업단지의 유지 및 관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 지역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입주한 기업의 원료, 부품 등 중간재의 조달을 지원하고 생산된 제품의 현지 판매, 본국 수출 및 제삼국 수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의 수출에 관한 ODA 및 정부지원책의 강구와 종합상사 등 민간기업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패키지형 인프라 시스템이 세계 각지에 구축되게 된다면 한국의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국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ODA 관련 예산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ODA관련 실시체제의 일원화 및 제도의 개선과 현 ODA 배분정책의 재검토 및 투명한 평가체제의 구축이 요구되며, ODA의 실사가 무조건적인 경제이익 추구가 아니라 피원조국에서 환영 받을 수 있는 원조의 실사가 요구된다. 즉 원조국과 피원조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원조의 실사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강철구·홍진이(2009)「“일반논문 : 일본 국제원조정책의 배경과 특징에 대한 고찰」『행정논총』제47권3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pp.225-244
 김성태(2007)「좋은 정부, 좋은 정책: 제3회의: 정책사례 기획논문: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ODA)정책방향 모색 : 공여선진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한국정책

- 학회, p.445
- 田尻秀(1995)「일본의 대아세안 경제협력정책: 정부개발원조(ODA)의 목적과 성과」『國際政治論叢』제35집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pp.291-316
- 박홍영(2001)「일본 공적개발원조(ODA)연구의 비판적 검토: 일본 ‘원조외교’ 연구방법의 시론」『국가전략』제7권1호, 세종연구소, pp.65-88
- _____ (2002)「일본형 원조외교의 특징 및 변화상 고찰: 서구제국과의 비교관점에서」『국제정치논총』제43집4호, pp.381-399
- _____ (2006)『일본 ODA와 국제정치』한울아카데미
- _____ (2010)「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해석과 평가」『일본연구논총』제32호, 현대일본학회, pp.245-272
- 이종윤·김현성(2009)「종합상사 사양논쟁과 일본 상사의 뉴비즈니스」『국제지역연구』제13권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pp.369-390
- 전황수(1996)「일본의 대아세안 경제협력정책: 공적개발원조(ODA)의 목적과 성과」『국제정치논총』제35집2호, pp.291-316
- 浅野展正(2014)「総合商社の存在意義についての考察」『商大ビジネスレビュー』第3巻第2号, pp.1-18
- 賠償問題研究会編(1963)『日本の賠償』世界ジャーナル社, p.24
- 賠償問題研究会編(1959)『日本の賠償: その現状と問題点』外交時報社
- 外務省『日本の国際協力: ODA白書』, 各年刊
- 稲田十一(1987)「日本外交における援助問題の諸側面(対外援助と日本<焦点>)」『国際問題』No.326, 日本国際問題研究所, pp.2-20
- _____ (1996)「冷戦後の国際経済支援の枠組み-共有価値と日本の貢献」『外交時報』1月号, 外交時報社, pp.19-31
- _____ (1997)「ワシントン・コンセンサスvs日本型アプローチ-国際開発のパラダイム論争と日本の知的貢献」『外交時報』9月号, 外交時報社, pp.13-29
- 稲田十一(2005)「開発・民主化・安全保障の相互連関-「国づくり」にむけた国際支援の枠組みと日本の役割」『アジア地域秩序とASEANの挑戦』(黒柳米司編), 明石書店
- 五百旗頭真(2003)「外交戦略の中の日本のODA(焦点 日本のODA政策)」『国際問題』第517号, 日本国際問題研究所, pp.2-20
- JPEC(2013)「JPECレポート」第18回, 日本石油エネルギー技術センター
- 那須祐輔(2006)「日本の対アジアODAの諸問題」『経済政策研究』第2号, pp.33-57
- 中谷巖(1998)『商社の未来像』東洋経済新報社
- 中村真人(2012)「総合商社による事業投資の発展と日本企業のグローバル化: 資源とエネルギーの分野で」『東京女子大学紀要 論集』第62巻2号, pp.87-178
- 日本国際協力機構(JICA)「ODA 실적 보고서」各年刊
- 日本の石油化学最近30年史, <http://www.knak.jp/livedoor/25/contents.html>
- 日本国際協力銀行「総合商社による電力事業の海外展開」JBIC 홈페이지.
- 日本内閣(2009)「経済財政の中期方針と10年展望」, <http://www.kantei.go.jp>
- 日本内閣(2010)「新成長戦略」, <http://www.kantei.go.jp>
- 日本内閣(2012)「日本再生戦略」, <http://www.kantei.go.jp>
- 日本内閣(2013)「日本再興戦略」, <http://www.kantei.go.jp>
- 日本貿易会(2013)『日本貿易会 月報』11月号
- 鷺見一夫(1997)『ODA援助の現実』東京: 岩波新書
- 通商産業省(現経済産業省)(1960, 1970, 1975)『経済協力の現状と問題点』通商産業省調査会
- 対外経済協力会関係閣僚会議(1998)「ODAの透明性・効率性の向上について(妙)」資料20, 11月27日,

<http://www.soumu.go.jp/hyouka/siry0020.pdf>

田中隆之(2012)『総合商社の研究』東洋経済新報社

湯伊心(2011)「1960年代における経済協力によるプラント輸出促進」『横浜国際社会科学硏究』第16卷1号, pp.49-61

土井教之・伊藤正一・増田政靖(2006)『現代の総合商社: 発展と機能』晃洋書房

内田吉英(1988)『産業界シリーズ・534 商社』株式会社教育社

渡辺利夫・三浦有志(2003)『ODA(政府開発援助)日本に何ができるのか』中公新書

山下道子(2003)「日本のODA政策の現状と課題」ESRI調査硏究レポート、No.3

Arese, David(1994), Public-Private Sector Interest Coodiationin Japan's ODA, Pacific Affairs, Vol.67, No.2,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p.177-178

Sunaga, Kazou(2004), The Reshaping of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Charter, FASIC Discussion Paper on Development Assistance, No.3, FASID, Tokyo, p.9

Yanagihara, Toru & Anne Emig(1991), 'An Overview of Japan's Foreign Aid', in Shafiqul Islam, ed. Yen for development: Japanese Foreign Aid and the Politics of Burden-Sharing, New York: Cou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pp.38-39

OECD, DAC 각종 통계 및 자료 <http://data.oecd.org/oda>

伊藤忠商事株式会社 <http://www.itochu.co.jp/ja>

住友商事株式会社 www.sumitomocorp.co.jp

丸紅株式会社 <http://www.marubeni.co.jp>

三井物産株式会社 <http://www.mitsui.com/jp/ja>

三菱商事株式会社 <http://www.mitsubishicorp.com/jp/ja>

日本貿易会 <http://www.jftc.or.jp>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

日本内閣部 <http://www.cao.go.jp>

日本首相官邸 <http://www.kantei.go.jp>

日本経済産業省 <http://www.meti.go.jp>

논문투고일 : 2015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7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7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7월 20일

 <要旨>

일본 ODA와 종합상사의 역할

일본 ODA는 정치 및 외교적 목적으로도 개발도상국에 공여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국익을 중시하여 공여해 왔다. 또한 일본은 일본기업의 수출 및 수입, 해외진출 등과 연계하여 ODA를 개발도상국에 공여해 왔다. ODA 주관자로서 1부12성정이 ODA에 관여하고 있으며, 외무성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원조정책을 기획입안하고 정책을 조정한다. 국제협력기구(JICA)가 실제적으로 기술협력, 유상자금협력, 무상자금협력 등 종합적인 원조실시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ODA 역사에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종합상사가 ODA안건을 조사발굴하고 제안하고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ODA의 실시과정에서 일본종합상사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검토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A Study on the Role of Sogo Shosha in Japanese ODA

The government of Japan has been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the ODA funds in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purposes, but has actually been granted for its economic purposes. The government of Japan has been donating the ODA funds to developing countries by linking imports, exports and overseas direct investments of Japanese firms. One cabinet office, 12 ministries and agencies are involved in ODA as a organizer of OD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rganize and adjust the ODA policy in close cooper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JICA) is responsible for its role as overall ODA's implementing agency like as JICA actually provides bilateral aid in the form of Technical Cooperation, ODA Loans and Grant Aid. However substantially Sogo shosha(general trading firm) dig out ODA projects to propose to the government and has played a most important role in promoting ODA projects in the history of the Japanese ODA. But We can not find the study of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Sogo shosha associated with the conduct of the Japanese ODA. Therefore,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role of Sogo shosha in order to derive political suggest points for South Korea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Japanese ODA.